

- 루나 루페레즈 [눈을 뜨니 이웃사촌?!]

3학년 겨울 방학. 리오는 마법세계로 이사를 했다. 그런데 옆집이 루나?!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의 친구와 이웃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. 리오는 잠깐만 생각했다! 어쨌든 루나를 계속 볼 수 있는거잖아? 호그와트의 루나에게서 볼 수 없던 이웃 루나의 모습이 달가웠다. 방학이 되어도 같이 캐치볼 할 수 있어서 좋아! 그치만..스마트폰을 쓸 줄 모른다는 것에는 아주 조금! 놀랐다.

- 페루티우스 K. 킹 [오늘의 네 운세는 아주 좋아!]

매일 운세를 보러오는 펠은 이제는 아주 익숙해져서 주변을 기웃거리기만 해도 카드를 섞는다. 배우려는 모습에 이것저것 가르쳐 줬지만.. 미안.. 뭔가 미안. 너무 점에 의존하는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. 네 운세는 아주 좋아. 뭘 걱정하는거야? 좋지 않은 운세가 나와도 네가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! 오늘도 적당히 행운의 아이템을 골라준다.